

휴켄스, 5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정밀화학 핵심소재 생산기업 휴켄스가 5년 연속 무분규 협상타결 기록을 세워 주목받고 있다.

휴켄스는 노조가 8월23일 2011년도 임금 관련 협상을 기업에 위임함에 따라 2007년 이후 5년째 임금협상 위임이 이루어져 5년 연속 무분규 협상타결 기록을 이어갔다.

김재학 휴켄스 노조위원장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견일치 결과를 반영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경득 휴켄스 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노조가 임금협상 위임을 결정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성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휴켄스는 질산 등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해 연간 6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화학저널 2011/08/23>